

새 책

▶어쩌면 스무 번·사육장 쪽으로 (편혜영 지음)=작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쓰인 단편들 가운데 성격이 유사한 여덟편을 골라 꼼꼼한 수정을 거쳐 '어쩌면 스무 번'에 담았다. 새로이 펴내는 '사육장 쪽으로'와 함께 작가의 초기 세계와 그 세계에서 시작돼 현재에 이른 궤적을 따라가 볼 수 있다. 문학동네, 각 1만3500원.



▶잠깐 숨 쉰 후 올게요 (제시카 배철 지음, 고정아 옮김)=여성의 리더십 향상을 독려하는 책으로 꼽힌다. 작가는 베스트셀러 작가, 유수의 저널리스트, 저명한 의학박사, 공학자, NGO 활동가, 기업 최고경영인 등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전문직 여성 25명의 최악의 실수, 실패, 좌절, 시행착오 이야기를 통해 성장의 필수요소인 실수의 힘과 가치를 전한다. 북하우스, 1만5000원.



▶그 바닷속 고래상어는 어디로 갔을까 (김기준 지음, 최성순 사진)=저자가 지난 20여년간 물다브, 갈라파고스, 필리핀 팔라우, 제주 앞바다 등 국내외 여러 잠수 지역을 찾아다니며 스킨스쿠버 체험을 통해 기록해왔던 내용을 묶은 수중 에세이집이다. 수중 세계의 비경과 수중 생물의 생존의 비밀을 에세이와 시로 재현해냈다. 또 스킨스쿠버를 직접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요령도 알려준다. 스타북스, 1만5000원.



▶객체들의 민주주의 (레비 R. 브라 이언트 지음, 김효진 옮김)=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 개념에서 니콜라스 루만의 체계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을 함께 엮어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사이의 인위적인 간극을 용해하고 객체들의 실재로서의 동등성을 단언하는 비근대적인 '평평한 존재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갈무리, 2만3000원.



▶울릉도를 지킨 안옹복 (안도현 글·김서빈 그림)=안도현 시인이 울릉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현대판 버전으로 새로 썼다. 울릉도 너도밤나무에 얽힌 이야기, 울릉도에 정이 들어 차마 떠나지 못한 선녀 이야기, 아버지를 기다리다 촛대바위가 된 딸과 그 옆을 지키는 동백꽃 이야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울릉도를 지켜 낸 어부 안옹복 이야기 등 재미와 감동을 주는 네 편의 이야기가 담겼다. 상상, 1만3000원.



▶내가 담그는 똑딱 고추장 (고은정 지음, 안경자 그림)=고은정 우리장학교 대표는 고추장의 역사, 각 지역의 다양한 고추장 담그기를 연구하다가 실제로 할머니들이 간편하게 담그는 고추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똑딱 고추장' 조리법을 만들었다. 책에서 제안하는 조리법을 따라하면 어린이와 요리 초보자 등 누구나 짧은 시간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고추장을 똑딱 만들 수 있다. 철수와영희, 1만30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불리지 않는 노래, 국가가 시련 겪는 이유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국가(國歌)가 위기다'

애국가 등 67개국 국가 집단 정체성 의제 흔들

그가 이번에 평론의 대상으로 삼은 건 국가(國歌)다. 국가는 '나라를 대표·상징하는 노래'로 의식 행사에서 제창되는 경우가 많다.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대회 금메달 시상식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국가는 때로 몽글한 '애국심'을 일으키지만 이것을 불편하게 보는 이들도 있다. 국가에 대한 해당 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단일하지 않다.

대중음악 평론가이자 팝 칼럼니스트인 임진모씨가 펴낸 '국가가 위기다'는 '나라노래'의 오늘을 살핀 글로 묶었다. '불리지 않는 노래 국가의 시련'이란 부제에서 짐작하듯,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국가의 현실과 그 배경을 짚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포함 67개국의 국가를 불러냈다. 아시아에서 유럽을 거

쳐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순으로 향한다.

프랑스의 '마르세유의 노래'는 국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노래는 가사에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내용이 산재해 부드러운 언어로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져 왔다. 실제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은 북아프리카 알제리 사람들은 '마르세유의 노래'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는 자국의 국가가 연주될 때 듣기만 할 뿐 따라 부르지 않는다. 국제 경기에서 메시의 이런 태도는 논란을 부르는 일이 적지 않다. 이에 메시는 "그냥 국가를 듣는 게 내 방식이다"라고 말한다. 메시는 국가 부르기가 나라의 상징체계 가운데 하나로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는 핵심적인 의제라는 오래된 사실에 돌을 던진다.

국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우리 곁에도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인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를 둘러싼 친일·친나치 행적에 대한 언급이다. 작곡가의 정체성에 대한 갑론을박에 더해 '애국가'는 작사가가 누구인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저자는 포용과 배제, 유지와 교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의 결론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찾고 연구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내일을어는책, 1만6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온몸으로 살아 내는 언어에서 찾는 내일

김수열 시인의 산문집 '달보다 먼 곳'

그의 시를 키운 건 8할이 무근성이 아닐까. 시인은 구불구불 원도심 골목을 떠돌고, 집어등을 수평선의 별들로 생각했던 소년기를 기억한다. "수평선에 가물가물 떠 있는 별들이 인제면 하늘로 오를까 하고 지켜보던 그때 그 마음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김수열 시인이 여러 지면에 발표한 원고와 대답을 모아 산문집 '달보다 먼 곳'을 냈다.

'물에서 온 편지' 등 독자들에게 회자되는 시집을 출간했던 그는 산문 쓰기가 적잖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시인은 청탁을 받아 그 시기에 그것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제주의 상황이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여겨 지난 글들을 묶었다.

30편가량의 산문은 중등교사, 시인을 넘어 제주민예총 이사장 등을 맡으며 제주 문화예술운동

현장을 누벼 온 그의 여정을 드러낸다. 육지의 마당극과는 결이 다른 제주극의 이론적 토대 위에 탄생한 제주 마당극의 역사를 극단 수놓음, 놀이패 한라산의 어제와 오늘로 풀어냈고, 4·3문학과 예술 활동의 당위성이 지금의 강령, 성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의 시에 이야기가 있고, 등장인물의 심리가 시적 화자로 들어가는 등 대부분 서사가 있는 건 마당극을 함께해서 그럴 거라는 시인의 육성도 들어 있다.

강정 해군기지, 제2공항, 대정 송악산 개발, 선을 동물테마파크 등 제주가 더 망가진 채 황량해지고 있다는 시인이 문득문득 무근성과 탐등 등 유년의 장소를 불러내는 데는 제주의 역사와 삶, 문학이 그곳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르



는 언어가 눈에 띄면 국어사전에 기댔던 시인은 문학에 뜻을 두고 제주의 속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어머니의 언어가 귀에 들어왔고, 그 언어는 맘흔리는 생의 발에서 길어 올린 것임을 알았다. 교과서에 배운 언어로는 도무지 그 깊이와 너비를 헤아릴 수도 담아낼 수도 없었다는 시인은 그래서 온몸으로 살아 내는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길을 나선다. 삶창, 1만5000원. 전선희기자

이 책 제일 김시중 시인 대담집 "시는 현실 인식에 있어서의 혁명"

일본 사회평론가인 사타카 마코토가 '일본 시단의 거장' 김시중 시인과 대담한 내용을 엮은 '제일(在日)을 산다-어는 시인의 투쟁사'엔 "잠들어 있는 화산이 눈을 뜨는 것처럼 때로는 마그마가 폭발"하는 노시인의 목소리가 있다. 시인은 사타카 평론가와 대화를 이어 가며 일본 내 서널리즘의 풍토에 대한 우려, 시인이 변함없이 취해야 하는 자세, 제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차별과 극복, 문학의 전쟁 책임, 우리나라가 하나의 조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역설했다.



김시중 시인이 2019년 4월 제주를 찾아 4·3 당시 수용소였던 주정공방 터에서 그 시절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제주4·3사건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시인은 대담집에서 그때의 일이 지금도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른다고 고백하고 있다. 일본으로 향하기 전 시인은 동네 구장이던 외삼촌의 집 뒤에 잠시 몸을 숨겼다. 경찰관이나 군인을 접대했던 외삼촌은 이를 토벌대 가담 행위로 본 산부대의 죽창에 찔려 죽는다. 시인은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겼다.

사회평론가 사타카와 대담 현실과 괴리된 자연 예찬들 생각할 힘 없애는 노래 경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주를 찾은 시인은 비로소 속부의 가족과 화해한다. 당시 종일 벌어진 진혼굿을



경험한 시인은 "4·3사건과 같은, 말이나 글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은 그 토지의 신이 아니면 진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제주 시내 '아사히구락부'라는 극장에서 봤던 유랑 악단 공연 일화도 전했다. 우리나라 예능이 억압 받고 있던 때, 전라도에서 온 예술인들이 우리 음악을 연주했는데 객석에선 욕설이 난무했다. 그 무렵 "눈에 띄게 두드러진 황국소년"이었다는 시인은 그 자리에서 관객이 던진 것을 맞으면서도 노래만은 다 부르고 일어섰던 예술인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시인은 이 대담에서 자연이 풍요로운 곳일수록 과소화되어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일본의 현실과는 아랑곳 없이 그것들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하는 단카나 하이쿠도 비판했다. 이는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난날의 감정으로 빠지게 하면서 생각할 힘을 없애는 연가에 대한 경계와 닿는다. 시인은 말한다. 시는 결국 현실 인식에 있어서의 혁명이라고. 연가를 부르지 않는 선택도 인식의 변화이므로 시의 시작과 같다고. 이창익 제주대 일문과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보고서, 1만3000원. 전선희기자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방진방수인증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